

四、永久保存財產內 道路開設(隆聖陵)原案대로許可

五、蔚山鶴城內便所施設 原案대로許可

六、泰、康陵地域內의 體育會舍宿所設置는 圖面대로 하되 當局必要時는 撤去하  
며 運動施設은 現狀을 維持하는 範圍內에서 할것

七、江陵烏竹軒內 栗谷紀念館 및 大門新築、丹青 등은 文化財委員會와 管理局의  
指示에 依한다. (但、烏竹軒의 丹青은 不許)

八、海印寺藏經板庫補修工事는 原案대로 設計變更하여 施工하도록 한다.

九、國博에서 提出한 全南地區支石墓發掘은 原案대로 許可

◎ 坡州郡 交河面 支石墓 調査

國博에서는 지난 五月二四일부터 六月三日에 걸쳐 交河面 多粟里에 있는 支石  
墓群을 發掘調査하였다. 現地는 小丘陵地帶로서 한때 軍隊가 訓練場으로 使用하  
고 있었던 곳으로 訓練用 道路와 幕舍架設地 등으로 甚히 攪亂破壞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南方式支石墓가 十數基 散在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完全히 자리를 옮  
긴것 또는 蓋石이 뒤집어진 것들도 있었다. 이 밖에 丘陵傾斜地를 隔아서 道路  
를 비롯이 있었던 바 그 傾斜地 断面에서 地表下 一·四m 程度에 長約 7m의  
불에 탄 木炭을 많이 包含하는 層이 있어 堅穴住居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調査는 이 住居址로부터 시작되어 그밖에 五基의 支石墓를 發掘하였다. 이 支石  
墓中의 하나는 北方式支石墓로서 이 附近에 散在하는 支石墓中 唯一한 北方式支  
石墓였으며 支石은 現在 三個가 遺存하였으나 遺物은 發見치 못하였다. 其他 支  
石墓에서도 確實히 그 支石墓의 下部遺構에서 出土된 遺物은 없고 이와 關聯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遺物로서 半月形石刀가 一基의 支石墓에서 發見되었다.

또 이 南方式支石墓의 하나에서는 그 下部에서 堅穴住居址가 發見되었다. 住居  
址는 前記한 이비 그 存在를 豫測했던 것과 支石墓 밑에서 發見된 것의 두遺構가  
調査되었으며 前者는 略南向한 것으로 幅三·三m 長約 9m로서 全面에 불에  
탄 痕跡을 볼 수 있었고 堅穴壁下에는 작은 구멍이 約六〇cm 間隙으로 나타나고  
中央部에는 東西로 네개의 기둥 구멍으로 생각되는 直徑約一五cm의 구멍이 一列  
로 나타났다. 遺物로서는 堅穴의 西邊上部에서 磨製石斧 一個와 堅穴바닥에서 無  
文土器片이 比較的 많이 出土되었다. 後者는 幅約 四m이나 그 北端은 破壞되  
어 形을 正確히 알 수 없었다. 遺物은 堅穴바닥에서 磨製石鏃 數點과 無文土  
器片이 出土되었고 그와 같이 櫛文土器片이 數點 出土되어 매우 興味를 끌게 하

었다.

◎ 全南 谷城郡 石谷面 支石墓 調査

國博에서는 六月二二일부터 約一〇日間 豫定으로 蟾津江 支流인 寶城江 沿岸  
의 小平地에 群在하는 南方支石墓를 調査하고 있다. 調査者는 尹武炳、金正基、  
李蘭暎、韓炳三의 諸氏다.

◎ 大學博物館協會聯合展

韓國大博物館協會에서는 第三回 聯合展示會를 지난 五月二十六일부터 六月五  
일까지 十一日間 大邱市 慶北大學校 博物館에서 開催하였다. 出品校 서울, 全南  
全北 等地의 十二個校이며 舊石器時代 石器를 비롯하여 青銅器、土器、寫經、陶  
磁器、繪畫等 全時代に 걸친 各分野의 遺物 一六八點이 陳列되었고 觀覽者 一萬  
三千名을 넘는 大盛況을 이루었다. 또한 最終日인 六月五日에는 午前 十時부터  
同校 師大 一〇號講堂에서 다음과 같은 講演會가 있었다.

漢江流域의 先史遺蹟 金廷鶴

韓國青銅器文化 金良善

韓國塔婆의 樣式과 變遷 秦弘發

——第六卷 第七號 通卷六十號——

### 高麗銅製三尊佛像

黃 壽 永

約二年前 江原道에서 出土되어 個人이 收藏하고 있다는 이 稀貴한 遺  
品을 七月十三日 서울에서 調査할 수 있었다. 이 佛像에 대하여는 이미  
今春四月頃에 寫眞 一枚를 入手하였던 바 이번에 現品을 대하게 된 것은  
多幸이었다.

이 三尊佛像은 현재 背光上端이 缺失된 以外는 거의 完全하게 保存되  
었는데 鍍金의 痕蹟은 거의 아니보이며 全面이 黑色인데 곳곳에 銅色바  
탕을 들어내고 있다. 또 細部에 黑漆의 痕蹟이 남아 있고 臺座를 중심

——第六卷 第七號 通卷六十號——

### 高麗銅製三尊佛像

黃 壽 永

約二年前 江原道에서 出土되어 個人이 收藏하고 있다는 이 稀貴한 遺  
品을 七月十三日 서울에서 調査할 수 있었다. 이 佛像에 대하여는 이미  
今春四月頃에 寫眞 一枚를 入手하였던 바 이번에 現品을 대하게 된 것은  
多幸이었다.

이 三尊佛像은 현재 背光上端이 缺失된 以外는 거의 完全하게 保存되  
었는데 鍍金의 痕蹟은 거의 아니보이며 全面이 黑色인데 곳곳에 銅色바  
탕을 들어내고 있다. 또 細部에 黑漆의 痕蹟이 남아 있고 臺座를 중심

——第六卷 第七號 通卷六十號——

### 高麗銅製三尊佛像

黃 壽 永

約二年前 江原道에서 出土되어 個人이 收藏하고 있다는 이 稀貴한 遺  
品을 七月十三日 서울에서 調査할 수 있었다. 이 佛像에 대하여는 이미  
今春四月頃에 寫眞 一枚를 入手하였던 바 이번에 現品을 대하게 된 것은  
多幸이었다.

이 三尊佛像은 현재 背光上端이 缺失된 以外는 거의 完全하게 保存되  
었는데 鍍金의 痕蹟은 거의 아니보이며 全面이 黑色인데 곳곳에 銅色바  
탕을 들어내고 있다. 또 細部에 黑漆의 痕蹟이 남아 있고 臺座를 중심



으로綠鍍이 나타나고 있다.出土後지나치게洗滌하므로古態를 잃은 듯하다.

같은 곳에서 左右로 分岐된 작은 蓮華座위에 羅漢立像 各一軀를 配置하였다. 그리하여 심각한 左右對稱의 手法를 보이고 있다.

먼저 中央本尊은 螺髮三道通肩衣 說法印의 坐高十二cm(臺座高六cm)의 正面像으로 阿彌陀如來佛像으로 推定한다. 단아한 相好는 약간 속으렸고 法衣의 주름도 정돈 되어 있다. 다음에 左便 菩薩像(坐高十一cm)은 寶冠(中央化佛坐像) 커거리 팔각지 목거리 兩膝에 심세한 瓔珞이 장식되었으며 兩肩위에 寶髮數條가 느리어 있다. 兩手는 合하여 拇指를 맞대고 있으며 法衣의 처리는 本尊과 거의 같다. 이像은 觀音으로 보인다. 右像(坐高九cm)은 左像과 약간 다른데 그 다른 點은 頭飾으로 이像은 頭巾을 쓴 形式으로 그 兩端이 두어개위에 늘어져 褶皺을 이루고 있다. 이마에는 頭巾위로 三個의 구슬이 보이며 거타의 寶飾은 左菩薩像

三尊은 모두 坐像으로서 中央如來像을 中心으로 그 左右에 兩脇侍가 一段 낮게 配置되어 있다 三尊이 모두 重瓣蓮華座위에 結跏趺座하였는데 中央本尊臺座는 八角形을 이루었으며 (말에 眼像) 그 左右에서 分岐된 蓮枝로서 蓮華座를 받았으며 다시

과同一하다. 이像 또한 兩手를 무릎위에서 잡고 있는 바 궁근 寶珠를 받들고 있다. 그리하여 이像은 그 樣式이나 持物에서 地藏菩薩로 推定된다. 그리하여 三尊形式에 있어 左右에 각기 다른 坐像을 選定한 것이 注目되는바 通例에 있어서는 兩脇侍의 樣式도 同一하며 이像과 같이 本尊이 阿彌陀인 경우는 脇侍는 觀音 勢至의 兩菩薩로서 三位一體를 이루게 된다. 이같은 特異點에서 當代 信仰의 一面을 엿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 本尊蓮花座 左右에 配置된 僧形合掌立像은 모두 同大(身高六·三cm)인데 剃髮하고 같은 僧服을 입고 있다. 光背(現高一四·五cm)는 圓形인데 本尊 바로 뒤에 重圈의 頭身光(無紋)이 있고 本尊頭部 左右에 半跏形의 化佛一雙과 그 위에 다른 一軀가 각기 蓮花座위에 있으며 間地에는 蓮枝가 열려 있다. 左右脇侍 또한 本尊과 同一形式의 頭身光을 지니고 있다. 鑿造에 있어 本尊은 臺座와 더불어 內孔이며 兩脇侍는 背面에 方孔(一·六一·一·〇×四·五cm)이 있어 또한 內空을 이루었으며 光背의 裏面 三處(化佛)에 또한 작은 瓢形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光背가 平坦한데도 銘文의 記刻은 아니 보인다. (光背厚三mm) 글으로 造成年代인 바 各像의 樣式에서 미루어 高麗作品으로 推定하고자 한다. 本尊像의 樣式이나 相好에서 新羅以來의 繼承을 엿볼 수 있으며 兩脇侍像의 樣式에서 또한 高麗 菩薩像의 特色을 지적 할 수도 있다. 그리고 三尊配置手法이나 羅漢 光背 化佛等 樣式에서 古式을 볼 수 있는 바 특히 光背의 佛中半跏形을 볼 수 있음은 하나의 注目할만한 點이라 할 수 있다. (化佛은 原來 五軀가 아닌가 한다) 다음에 이 佛像에는 原來 漆金이 있었고 또 하나의 龕佛로서 木 또는 金屬製 龕形안에 奉安되었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現存하는 佛龕(例如 德壽宮所藏品)과 동시에 高麗 三尊像의 類例로서 忠南 禮山郡 涉山面 靈塔寺에 보존되어 있는 이보다 큰 金銅 三尊像을 연상케 함이 있다. 後者인 靈塔寺三尊은 이像보다 年代가 降下하는 것으로 推定되는 바 이와 같은 金銅製三尊樣式이 오랜 傳統을 갖고 新羅 高麗 兩代에 걸쳐 流行되었음을 이 新像의 出現으로서 짐작할 수가 있다. 이같은 點에서 또한 高麗金銅像의 貴重한 一資料가 될만하다. 더욱이 佛像各尊의 造成이 우수하고 彫法이 刻明 流麗함은 良

工의苦心作업을알수있다.光背一端이破失됨이유감이나三尊이完存함은또한香徒의造成發願에의함일까

(三尊現高二〇・五cm 前面幅二五cm 厚八cm) (七月十四日)

### 高麗 梵鐘의 新例

鄭 永 鎬



通型的 靑銅製 高麗 梵鐘으로總高二〇cm의小鐘이다.鐘頂에는甬筒과龍紐가있으나現在는寶珠를갖고있는龍의一足만이殘存하고그外部分은缺損되어있다.鐘肩上周緣에는山形文을들렸으나破損된部分과우구러진곳이 많으며上,下帶에는等行의數條線으로波狀文을새겼다.上帶에連한乳廓이四處에配置되었는데二條線으로된波狀文을들린안에는圓形內에球形의九乳頭가突出되어있다.幢座는三處에있으며圓形으로서는蓮瓣은없다.鐘腹에는四處에坐像이陽鑄되었으나磨損과靑銹로尊名은分別키어렵다.한편一幢座 뒷편과坐像間地에는各一點씩(都合二個)同一한手法의彫飾(樂器類?)이있어注目되었다.鐘口가 두툼하게잡히는高麗鐘으로서鐘身에若干우구러진部分이있으나鐘全面에靑綠銹가있고鐘頂의龍紐에傷痕이있을뿐

比較的完形에가깝다할것이다.배출됨이甚하지않아날씬한듯하나各部의手法이洗鍊되지못하여말쑥한印象을주지않는다.年代는高麗下代로推定된다.實測值(cm)는...甬筒高四・八口徑十三・七口徑厚一・五上徑八・三上帶一・二下帶一・八幢座徑二・八乳廓上三・七下四・五×四이다.이梵鐘은今年六月初에京畿道楊平郡龍門山廢寺址의바위틈에서發見되어(처음發見當時부터바위에끼어우구러져있었다고한)그후 곧骨董仲介人을通하여市內博古堂(鍾路三街七三)에入手되었다는것인데(博古堂主人黃圭董氏談話)지난六月二十二日黃氏의好意로筆者는現品을調査할수있었다.끝으로이遺物이 잘保存되기를期待하면서調査에 많은便宜를주신氏께感謝드린다.

### 清原郡 梧倉面 石造佛像

李 殷 昌

一九六三年 가을에 忠清北道 清原郡 梧倉面의 石造佛像 二軀를 調査할수있었다.其一是 槐亭里의 石造如來立像이고 其二是 塔里의 石造佛坐像인바 모두精巧한 石像이기에 이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 一、槐亭里 石造如來立像

忠北線 梧根場驛에서 鎮川行 道路로 가다가 槐亭里 앞에서 徒步로約一km쯤되는「탑상굴(塔像洞)」을찾으면 寺址로 推定되는 곳이있고이곳에홀로 石像一軀가서있다.丘陵 南斜面에 西向하고 있는즉 位置하고있는 地形과 方向 등으로 보아 原位置를 變更한 것 같다.

石像은 花崗石製로 그 乳白 色이 그대로 있고 右肩 右手의 一部가 破損된外 比較的完存하는 것이다.素髮에 肉髻가 있는데 現存 肉髻는 破損으로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없다.兩耳는 길고 耳朶가 어깨까지 드리우고 있으며 耳孔이 表示되었다.兩眉間에는 白毫相이 있었던바 지금은 圓孔痕跡이 남아 있으며 兩眉는 半月形의 三段弧線으로 그려져 있고